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물관리과장 : 이상훈 / 치수팀장 : 김재룡 / 주무관 : 시설 7급 백부현】

연락처(☎) : 2600-6955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- (연번 1) 서남물재생센터의 강서구민 특화 프로그램 개설 및 강서구생태환경센터(가칭) 설립 추진 방안
 - 강서구에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의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 시 강서구민(청소년)의 우선 배려 사항에 대한 관련부서의 추진 의견
 - 구청은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(환경)사업을 선도할 책임이 있음. 강서구민과 청소년들의 환경의식고취를 위한 체험과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마련 방안

□ 답변내용 ----- (물관리과)

- 평소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.
- 서남물재생센터 내에 위치한 서울물재생체험관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예약 포털 사이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강서구민에 대한 우선순위는 부여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다만, 별도 업무협의 등을 통해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이용이 가능하며 올해 하반기 우리구에서는 일부 강서구민을 대상으로 서울물재생체험관과 서남물재생센터 현대화시설 견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.

- 또한 서울물재생체험관에서도 자체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. 금년도 5월에는 서울물재생공원에서 관내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플로깅* 행사를 계획하고 있으며, 여름철에는 지역 어린이집 및 주민 등을 초청하여 물놀이터 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.

* 플로깅(plogging): 거리에서나 자연에서 조깅, 산책, 자전거 타기 등을 하는 동안 발견되는 쓰레기를 수집하여 건강과 함께 자연을 보호하는 운동

- 향후에도 관내 위치한 서남물재생센터 전시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해 강서구민의 대한 배려 사항이 주어지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녹색환경과장 : 현석동 / 기후변화대응팀장 : 홍경란 / 주무관 : 행정 7급 최승희】

연락처(☎) : 2600-4017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- (1) 구청은 버려진 자원을 활용하여 에코(환경)사업을 선도할 책임이 있음. 강서구민과 청소년들의 환경의식 고취를 위한 체험과 힐링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부서의 마련 방안

☐ 답변내용 ----- (녹색환경과)

- 환경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신 정정희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우리 부서에서는 청소년들의 환경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2007년부터 매년 7개교 내외의 초·중등학교를 대상으로 환경보전시범학교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총 37개교, 4만여 명의 초·중등생에게 생태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진행하였으며, 2022년부터는 18개 국·공립유치원 중 11개 국·공립유치원의 원생들을 대상으로 어린이 환경교육을 추진하고 있고, 20개 동 주민센터 직능단체 중 6개 주민센터 직능단체 등의 성인까지 환경교육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.
- 또한, 2022년 9월 친환경 에너지 체험시설인 (주)코오롱의 에코 룽롱 큐브를 강서구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학교와 사회

교육을 아우르는 환경교육의 거점으로서 지역 주민 등에 대해 맞춤형 환경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

- 여기에 2024년 공진중 부지에 서울시 교육청 주관의 폐교를 제로에너지빌딩으로 그린 리모델링화하는 에코스쿨까지 개관하게 되면 친환경 체험시설로서 환경 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등 강서구 환경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.
-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버려진 자원을 활용한 교육의 가능 여부는 검토하겠으며,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하고 있던 환경보전시범학교, 어린이 환경교육 등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환경교육 내실화, 활성화에 앞장서겠습니다.
- 감사합니다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문화체육과장 : 박은경 / 문화예술팀장 : 홍선미 / 주무관 : 행정 8급 권흥기】

연락처(☎) : 2600-5890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(2) 강서구 문화원

- 강서구 문화원 출자·출연기관화 설립 추진방안

□답변내용 ----- (문화체육과)

- 우리구 문화예술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리며,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강서문화원 출자·출연기관화 설립 추진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.
- 지방문화원은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『지방문화원진흥법』에 설립 근거를 두고, 각 시군구에 1개의 원(院)을 설립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민법에 따른 ‘사단법인’에 해당됩니다.
- 강서문화원을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의한 출자·출연 기관화하여 강서구 지역사회 문화예술 진흥과 기관운영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만,
- 강서문화원은 『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2항 ‘제외기관’ 대상 중 제4호 ‘민법에 따른 사단법인’으로서 출자·출연기관으로 운영하기에는 법률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울러, 지난 2022년에 출자·출연기관으로서 강서문화재단 설립을 사전 검토한 결과,
- 강서문화원이 최근 수행해 온 사업 내용이 지역축제, 공연, 전시,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예술행사 활동으로 타 자치단체의 문화재단 사업 유형과 내용면에서 별다른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음에도,
-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타 자치구의 경우, 인건비 등 기본경비를 포함한 재단 출연금이 매년 많게는 수백억씩 투입되는 반면, 우리 구는 2023년 기준 강서문화원에 시설위탁금 및 행사사업비 등으로 약 30여억원의 비용이 예상되어 적은 예산으로 구민에게 최대의 문화예술 향유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.
- 이에, 별도의 문화재단 설립보다는 강서문화원이 지역예술인 저변확대 및 무명 예술인 단체에 대한 폭넓은 지원 등 그 기능을 확대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강서구 문화예술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고자 합니다.
- 또한, 강서문화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사업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 하고 있음에도 민법상 독립된 사단법인으로서 구의 지도 점검 및 관리 감독이 제한적인바, 문화원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 구청의 지도 감독권 강화를 위해 『강서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』를 제정·시행 중이며, 앞으로도 구와 문화원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예정입니다.
-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교육지원과장: 김영선 / 장학사업지원팀장: 문영아 / 주무관: 행정 9급 강희민】

연락처(☎): 2600-6917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(2) 강서구장학회의 출자·출연 기관화 설립 추진 방안

□ 답변내용 ----- (교육지원과)

- 재단법인 강서구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강서구장학회는 2001년 ‘강서의 인재를 강서인의 힘으로’ 육성하자는 취지 아래 기본재산 3억원으로 설립된 이후 지난 20여년 간 기본재산을 40억원으로 증액하였고, 지금까지 강서구민 1,403명에게 장학금 18여억원을 지원하는 등 장학사업을 충실히 수행해 왔습니다.
- 법률 자문 결과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은 기관의 설립 당시부터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것으로 위 법에 근거하여 강서구장학회에 출연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.
또한, 기 설립된 민간재단에 구 예산을 출연하는 것은 통상적인 방법이 아니며, 유사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의견입니다. ※ 법무법인 인본(2023. 3. 22.), 법무법인 한정(2023. 4. 3.)
-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 등 다양한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필요한 시점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투입하여 장학회에 출연하는 것은 실효성이 적다고 사료됩니다.
- 따라서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발굴·육성할 수 있도록 민간의 출연, 관의 행정 지원으로 상호 협력하여 유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
- 강서구장학회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장학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끝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아동청소년과장 : 곽진영 / 아동청소년친화팀장 : 이영미 / 주무관 : 행정 8급 권민지】

연락처(☎) : 2600-6767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(3)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

□ 답변내용 ----- (아동청소년과)

- 평소 아동·청소년 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-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.
- 청소년의회는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 수렴, 모의 의정활동 등을 통해 청소년에게 민주주의 기본원리를 이해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참여 사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.
- 우리구의 경우,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어린이·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운영, 어린이·청소년 모의의회 체험을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이해와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,
- 현재,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제시 등의 기능을 하고 있는 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, 중복된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므로,
- 의정정치의 이해와 민주시민으로서 성장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청소년 의회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구청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교육지원과장 : 김영선 / 교육지원팀장 : 김민정 / 주무관 : 행정 7급 정용훈】

연락처(☎) : 2600-6980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(3)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

□ 답변내용 ----- (교육지원과)

-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.
- 제281회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었던 『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』에 따르면, 『청소년기본법』 제5조의2(청소년의 자치권 확대)에 의거 청소년들에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, 의회정치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데 제안이유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
- 위와 같은 내용은 그 기능과 목적에 있어 우리구 아동청소년과의 아동·청소년 권리와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『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』 및 구의회 사무국의 청소년의 지방의회 체험을 위한 『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어린이·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』와 중복성이 있으므로, 해당 두 조례의 종합적 검토·조정을 통해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사료됩니다.
- 아울러 청소년의회 도입 시 청소년의회 홍보 및 인원 모집 안내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회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 끝.

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

(서면질문)

【의회사무국장 : 김진철 / 의사팀장 : 정비오 / 주무관 : 행정 8급 오종원】

연락처(☎) : 2600-1808

정정희 의원 구정질문 내용

- 청소년의회 도입에 대한 부서별 방안

□답변내용 ----- (의회사무국)

-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.
-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권리주체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고, 스스로 관련 분야의 정책 및 현안 사항을 함께 논의하고 제안함으로써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자 제안된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 지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회부된 후 계류 중인 건으로,
- 「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현재 아동청소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‘강서구 아동참여위원회’의 아동 정책·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기능과 유사하여 중첩되는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,
- 청소년의회 도입 취지를 고려한 사업 시행 부서 결정 등의 사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아울러, 의회사무국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부서로 아동·청소년 사업을 직접 추진하기에는 인력부족 등 다소 무리한 점이 많다는 점 말씀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.